

청주보호관찰소

○ 매체 : 로이슈(2026. 7. 21.)

○ 제목 : 청주보호관찰소 재난복구 특별대응팀, 유관기관 협력으로 수해 피해 현장 복구 지원

청주보호관찰소 재난복구 특별대응팀, 유관기관 협력으로 수해피해 현장 복구 지원



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에 임하고 있다.(사진제공=청주보호관찰소)

[로이슈 전용모 기자] 법무부(장관 정성호) 청주보호관찰소는 지난 16일부터 '재난복구 특별대응팀'을 가동하고 청주시 강내면 행정복지센터 및 관내 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통해 수해 피해 현장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수해 복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.

'재난복구 특별대응팀'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내 시·구청 재난지원팀 및 지역 농협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복구의 손길이 시급한 소외된 이웃의 정보를 공유하고, 사회봉사 대상자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.

지난 16일부터 청주시, 증평군 등 도내 수해 피해 현장에 투입된 사회봉사 대상자(연인원 20명)들은 장맛비가 내리는 곳엔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토사로 막힌 농가 배수관 재설치 작업, 미호천에서 마을로 흘러 들어온 부유물을 말끔히 정리하는 등 복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.

증평군 농가주 K씨(90)는 일손이 없어 막막했던 심경을 토로하며 "보호관찰소에서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니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긴다"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.

청주보호관찰소 권순재 주무관은 "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긴급 재난 발생 시 사회봉사 대상자를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, 대상자들에게는 땀 흘리는 봉사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"고 전했다.